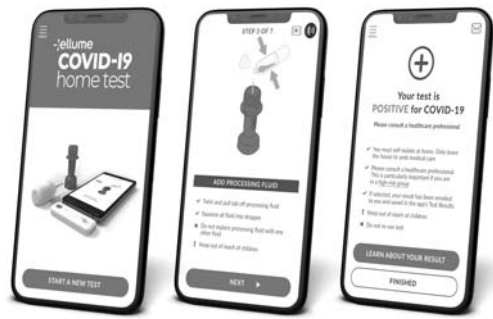


미 FDA 모더나 백신 18일째 승인

“예방 효과적”... 화이자 이어 2번째 연말까지 2000만명 접종 목표 미국 내년 5~6월 집단면역 전망



미 FDA 승인 받은 가정용 진단 키트

가정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15일(현지시간)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 호주의 제약사 일룸(Eillume)이 개발한 이 키트는 코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한 뒤 스마트폰에 연결한 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스마트폰 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5분이다. 불통버그 통신은 이 키트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곧 살 수 있게 될 것이며 가격은 약 30달러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FDA는 모더나 연구에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발견하지 못했고, 백신 투여자의 1.5%, 가짜약 투여자의 1.1%에서 과민 반응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백신 투여자들은 열, 피로, 통증을 포함한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며 “백신이 면역체계를 활성화함에 따라 두 번째 백신 투여 후에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FDA는 임상시험 때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은 일반적인 인구 대비로 발생하는 빈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더나 백신도 화이자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들에게서 보고된 것처럼 안면마비의 요인이 될 가능성을 적시했다.

임상시험 과정에서 백신 투약자 3명, 가짜 약(플라시보) 투약자 중 1명 등 모두 4명에게서 안면마비 증상이 보고됐지만 백신 투약자 3명 모두 자연적으로 치유됐다. 워싱턴포스트는 모더나 백신이 화이자와 비슷한 시험 결과가 나왔고 메신저 리보핵산(mRNA)이라는 동일한 기술에 기반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주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18일 FDA 승인이 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모더나 백신이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어서 이미 접종이 개시된 화이자 백신과 함께 미국의 코로나19 퇴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화이자 백신은 지난 13일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심사 절차를 완료하고 긴급사용을 최종 승인받은 데 이어 14일 첫 접종이 이뤄졌다.

미 정부의 백신개발을 총괄하는 팀 ‘초고속작전’의 문세프 슬라위 최고책임자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포함해 연말까지 4000만 도즈(dose)의 백신을 미전역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들 백신은 2회 접종해야 정상적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20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다.

슬라위는 내년 3월 말까지 1억 명이 면역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미국이 내년 5~6월 집단면역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 기대했다.

이들 2개 백신 외에도 존슨앤존슨 백신이 1월 말이나 2월 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월 말께 미국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설탕, 식욕 억제 호르몬 분비 방해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
비만도 높을수록 억제 수치 낮아

자당(설탕)은 포도당보다 식욕 억제 호르몬 분비를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당은 과당과 포도당이 반반 섞여 있다. 포도당은 꿀, 포도, 자두, 무화과에 많이 들어있다. 과당은 간에서, 포도당은 췌장과 다른 기관들에서 처리된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학 의대 당뇨병 전문의 캐슬린 페이지 교수 연구팀은 자당이 포도당보다 펩티드 YY(PYY),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같은 식욕 억제 호르몬 분비를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헬스데이 뉴스(HealthDay News)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성인 남녀 69명(18~35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가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연구팀

은 밝혔다. 연구팀은 이들에게 자당 또는 포도당 75g이 함유된 음료 300mL를 마시게 하고 10분, 35분, 120분 후 혈액 샘플을 채취, 배고픔을 억제하는 호르몬들의 수치를 측정했다. 그 결과 자당 음료를 마신 사람이 같은 양의 포도당 음료를 마신 사람보다 식욕 억제 호르몬 혈중 수치가 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당이 포도당보다 식욕 억제 호르몬 분비를 덜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당이 포도당보다 식욕 포만감(postprandial satiation)을 덜 유발한다는 의미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체질량지수(BMI: body-mass index)가 체중에 해당하는 사람일수록 자당 또는 포도당 음료를 마신 후 식욕 억제 호르몬 혈중 수치가 더 낮았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내분비학회 학술지 ‘임상 내분비학-대사 저널’(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 Metabolism) 최신호에 발표했다. /연합뉴스

일본 스가총리 회식 4명 이하 당부해놓고 15명 만찬

배우 등 동석 ‘망년회’ 열어 빈축
누리꾼 “국민에 호소할 자격 없다”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국면을 맞은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다수가 참석하는 회식을 반복해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국내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한 14일 밤 기업 경영자 등 약 15명과 회식을 했다. 그는 이후 도쿄 간의 한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열린 모임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니카이 도시하로 자민당 간사장, 배우 스기 료타로 등이 모였다. 참석자 수는 5명 이상(교도통신) 혹은 8명 정도(FNN)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스테이크 전문점 만찬 참석자 중 한 명은 민영방송 네트워크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의 인터뷰에서 ‘망년회’였고 야구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스가 총리는 15일에도 회식을 이어갔다. 전날보다 규모는 작았으나 이날 역시

저녁 자리에 두 번 참석했다. 지난달부터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당국이 회식을 통해 감염될 가능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스가 총리가 이처럼 여러 사람과 빈번하게 회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19일 총리관저 로비에서 열린 약식 기자회견에서 외식비 지원 정책인 ‘고투이트’(Go To Eat)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4인 이하”의 회식에 한정해 지원하도록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위터 사용자 ‘@wanpakuten’는 스가 총리의 회식에 대해 “스카도 니카이도, 하키우다(문부과 학상)도 국민에게 (방역 지침을) 호소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여권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연립여당인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스가 총리의 회식에 관해 “국민에 대한 메시지의 성격도 있다. 그것을 잘 배려하면서 앞으로 검토하면 좋겠다”고 우회적으로 자제를 당부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전했다.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예산 52억 편성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 대량 유출사고를 겪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과 관련해 안전성을 주장하는 홍보 예산을 따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 결정한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3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홍보비 52억엔(약 53억원)을 경제산업성 사업비로 반영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ALPS

)로 처리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춘 뒤 이를 바다에 배출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와 관련해 세계 각국이 설명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다.

오염수 배출로 인해 일본 해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오해가 생기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가 확산해 일본 식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계획이다. 홍보 예산까지 확보하면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의 주장이 더욱 확실할 것으로 우려된다. /연합뉴스



“농업개혁 3법 폐지하리!”... 연좌 농성하는 인도 농민들 인도 북부 하리아나주 티크리에서 15일(현지시간) 농민 수천 명이 최근 제정된 농업개혁법 폐지를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민들은 국가가 관리하던 농산물 유통과 가격 책정을 시장에 개방하는 내용의 농업개혁 3법이 시장 불안정성을 키위 결국 자신들의 삶을 파괴한다며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N·B

Him e Bhorng Solar Energy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